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협력 강화

정읍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6일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 사회복지과와 의료급여 담당자 1명과 의료급여관리사 4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 팀장 1명, 노인정책 담당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과의 재가 의료급여사업과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자연스럽게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불법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부안군은 불법적인 방문판매(뺑뺑방) 영업활동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부안군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 관계자를 비롯한 센터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유동인구가 많은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품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 사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은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 정보 제공 금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물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 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활력고창 나눔대화’ 성료

심덕섭 고창군수, 14개 읍·면 방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만들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을사년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5일 아산면 시작으로 전날(6일) 신탄면까지 14개 읍·면을 돌며 2025년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진행했다. 나눔대화는 올해 긍정방향 보고, 읍·면 주요 사업 설명, 건의사항 수렴과 답변, 경로당 방문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심 군수가 올해 군정 4대 추진방향(서민경제 활성화, 미래첨단 산업 육성, 세계유산의 특별한 활용,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직접 설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착한가력업소 지원’, ‘소상공인 용자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실제 올해 나눔대화에선 “계절군로 자 근로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마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을사년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

을 앞 공동모집을 이진해 주세요”, “버스승강장 유리창을 설치해 주세요” 등 삶과 직결된 사항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총 170여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조성, 읍·면사무소 신축, 관광 인프라 확충, 소공원 시설 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심 군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참

여를 끌어올렸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이 직접 건의자와 함께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군민대화 직후에는 현장행정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건의사항과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나눔대화를 통해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확대 시행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또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 △사화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

장된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을 신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9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0조에 의거 3년간 미 행사시 소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민원과 공무원 친절 다짐 간담회 개최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7일 민원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친절 다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실시된 친절교육에서는 2025년 친절 모토로 정한 ‘민원과는 친절의 시작점이다!’ 구호를 민원과장이 선창 2월의 친절 문구

를 40여명의 직원들이 재창하는 등 친절행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군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개선 등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민원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동료 직원간 열린 의사소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원과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군의 얼굴이기에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걸어서 건강 챙기고 · 쿠폰 받고

정읍시 ‘워크온’ 소상공인 챌린지 참여업체 모집

정읍시가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시민 건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챌린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시 보건소는 ‘1530 워킹정음’ 다함께 건강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한 소상공인 연계 챌린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워크온’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앱으로, 현재 1만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월별·마일리지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내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총 4만1,03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 연계챌린지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한 1,500명의 시민에게는 지역 내 소상공업체 이용 쿠폰(1만원권)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 상



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챌린지 참여업체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 분식집, 카페, 전통찻집, 제과점, 중화요리점이 대상이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전 챌린지에 참여한 업체는 가급적 제외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5개 업체가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군민설명회

고창군이 향후 1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군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불평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군세무과에 사업담당자와 군민 100명이 참석했다. 앞서 고창군은 2034년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군 탄소중립 전략과 감축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연차별로 수송·농·축산, 폐기물 등 총 6개 부문의 34개 이행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3%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달 15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올해 5월까지 최종안을 환경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기계 사고 종합보험료 80% 지원

정읍시가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보험비를 지원한다. 올해 총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다. 보험료의 80%를 정읍시가 부담하며 농민들은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을 크게 덜 수 있다. 특히 영세농업인에게는 100% 지원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8월부터 가입 대상 농기계가 확대돼 현재 총 14종의 농기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에서 농업용 리프트와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추가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